

“올 가을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준비 본격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62일간 'Meet Design' 주제

국제학술행사·체험거리 등 윤곽 기업 후원·입장권 사전예매 순조 국내·외 참여 작품 온라인등록도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학술행사와 다양한 체험거리 등 행사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 기업 후원과 입장권 사전예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의 참여 작품들의 온라인 등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포스터)'가 오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



해 광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본전시 △특별전 및 연계·기법 전시 △국제학술행사 △디자인비즈니스 △

디자인 체험·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또 국제포스터디자인초대전(비엔날레 전시관), 생태문화 테마전(시립미술관), 전·현직 총감독 추천 디자인전(양림동) 등 특별전과 영 디자이너전(디자인진흥원), 아날로그의 추억전(조선대 정황남 정보통신박물관) 등 다양한 연계기념전이 광주시내 곳곳에 마련된다.

국내외 저명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윤곽을 드러냈다.

6개국 4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가운데 9월8일부터 3일간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막 심포지엄 △디자인 포럼 △디자인 토크로 진행된다.

볼거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메타버스로 즐기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해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워크숍 △글로벌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시민

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디자인 전시는 물론 온 가족이 즐기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본전시에서 공개될 국내 및 해외 참여 작품들의 온라인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전시 환경구축 업체 모집도 들어갔다. 또 종합 홍보 대행사 선정에 이어 행사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디자인진흥원은 오는 7월9일 폐막하는 광주비엔날레가 마무리되는대로 작품 반입과 본격적인 전시 연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후원, 사전예매도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를 찾아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해 5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또 기아를 비롯해 광주신세계, 광주은행, 해

피니스CC 등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는 기업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네이버(티켓링크)를 통해 사전예매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비엔날레 통합입장권 구입을 비롯해 단체 사전예매 신청 등 관람객 호응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고물가 및 경기위축 등으로 가중되는 가계부담을 고려해 시민 할인제, 후원카드 할인제, 제휴할인제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 관람객 부담을 덜기로 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가을에는 광주에서 세계적인 디자인축제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100% 대면행사로 만나는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문창환 작가의 ACC 미디어아트 '조립된 풍경화'.

ACC재단 제공

ACC 미디어아트 2점, 광주비엔날레 야외 전시

비엔날레 문화콘서트 6월~10월 매주 토요일 북구 비엔날레 광장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ACC재단)은 ACC 미디어아트 2점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북구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 유통은 ACC재단과 광주 북구와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2023 북구 비엔날레 문화콘서트' 연계 행사로 추진된다. 광주 북구가 주최하는 '비엔날레 문

화콘서트'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ACC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를 비롯해 돛자리 영화제, 체험, 공연 등 비엔날레 관람객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작품은 2022 ACC 미디어월 공모 당선작인 조영각 작가의 '아홉, 구름, 꿈'과 문창환 작가의 '조립된 풍경화' 등 2점이다.

'조립된 풍경화'는 광주의 오래된 동물설화를 수집해 재구성했다. '아홉, 구름, 꿈'은 조선시대 국문 소설인 구운몽을 현대 시각으로 각색한 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성된

작품이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광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시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펼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역 협력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과 광주 북구는 지난해 10월 광주 비엔날레 5관에서 'ACC 미디어아트 展(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내 문화시설 활성화 및 문화예술콘텐츠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다. 도선인 기자

조영각 작가의 ACC 미디어아트 '아홉, 구름, 꿈'.

ACC재단 제공



광주 학동 참사 추모 연극 '뒹달아 무너진 세상'

9~10일 미로센터 극장2

광주 학동 붕괴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 연극 '뒹달아 무너진 세상'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극단 밝은밤은 오는 9~10일 광주 미로센터 극장2(옛 공동예술극장)에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추모하는 연극 '뒹달아 무너진 세상'을 공연한다고 4일 밝혔다.

'뒹달아 무너진 세상'은 지난해 1월 조선대학교 극 예술연구회에서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공연한 극이다. 공연 팀들은 이번 2주기도 학동 참사의 안타까움을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뜻으로 연극을 다시 한번 관객 앞에 선보인다. 작품은 중환자실 배경으로 학동 건물 붕괴 희생자 6명의 응급환자들이 들어온다. 위급한 환자들은 영혼 상태로 움직

일 수 있게 되는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한 남자 의사는 그들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죽기 전 당시 상황을 기억 하지 못하는 6명의 영혼들은 자신의 기억을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서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의사는 그들의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전달 해줘야할지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다.

김진우, 김선호, 최혜민, 김주영, 이은샘, 정수린, 이태영 배우가 남자 의사와 70대 할아버지, 중년 주부, 회사원, 가수,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등 역할로 출연한다.

극단 밝은밤 관계자는 "극에서 학동 붕괴 희생자들이 6명의 영혼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학동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빛2023 '위상의 변주'의 연계 '작가와의 대화II'

7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3 '위상의 변주' 전시연계 행사인 작가와의 대화II를 오는 7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는 강원제, 유지원 참여작가가 출연한다. 또 이들 작가의 평론 글을 작성한 문희영, 문현정 큐레이터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강원제 작가는 후기구조주의자인 자크 데리다의 이성과 합리화는 타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확정성을 가진 것으로, 본질적인 면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이를 위해 작품은 완성이 없으며 완성을 위해 그림을 시작할지라도 작업 과정에서 처음의 의도는 희미해지고 '그림' 자체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다. 작품은 목적이 아닌 그리기를 위한 수단이 되고(0 painting), 그로부터 생성된 흔적들은 결과물이 아닌 그리기의 부산물(By-product)이 되는 과정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유지원 작가는 '배제된' 혹은 잊혀진 개념, 공간, 존재 또는 기억과 역사의 흔적

들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한 시간 동안에서 반복되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작업을 한다. 특히 '장식적 가치'는 어떤 새로운 전통처럼 자리를 잡았고, 동시에 다른 공간은 타자화되어 진실과 관계없이 장식적인 면모가 지배하는 공간 전통이 생성된다. 배제된 공간을 통해 타자가 또 다른 타자에서 주제로 자리 잡게 되는 상황에 관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은 작품활동을 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제 작가의 평론 글을 작성한 미술평론가 문현정 큐레이터와 유지원 작가의 평론 글을 작성한 문희영 큐레이터를 평론자와 질의자로 초청했다. 예술공간 집 대표인 문희영은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지역의 작가를 연구하고 있다. 또 다양한 예술자원을 발굴하며 작가와 작품에 관한 글을 쓰고, 지역의 미술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 간다.

문현정 독립큐레이터는 동시대 예술이 보여주는 실험적인 시도와 이에 파생되는 미술 담론에 주목했다. 특히 동시대 기술과 매체에 주목, 인간과 기술 사이의 간극을 예술이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다. 도선인 기자